

“성보문화제는 우리가 지킨다”

통도사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의 밤 개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가 '제1회 통도사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의 밤'을 11월 1일 영축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청소년 신행단체 통도사 문화재지킴이단의 그간 활동을 선보이는 이 자리는 청소년들이 통도사에서 학습하고 익혀왔던 다양한 활동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축제에서는 난타, 영어로 하는 통도사 소개 등 지킴이단이 평소 통도사에서 익혀왔던 재능을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바이올린 연주, 무용 등 각 개인이 지닌 특기를 선보이는 무대가 펼쳐져 축제의 흥을 더했다. 통도사 포교국장 선본 스님은 “어떠한 일든 노력이 없으면 결실도 없다. 많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함께 즐기는 즐거움 한마당이 펼쳐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노래와 함께 선보인 수화공연에는 객석에 앉은 사부대중 모두 함께 노래와 울동에 동참해 화기에 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영어로 통도사 소개에 나선 김경민(김해교·16)군은 “통도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 학습할 수 있어서 알차다. 또한, 자연

스럽게 불교를 알아가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지킴이단 활동의 장점을 소개했다.

문화재지킴이단은 통도사 문화재를 외국인에게 알리고 인재불사를 위한 청소년 포교에 진력하고자 2008년에 창설됐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

청소년 포교 위해 2008년 창설 불교·영어 교리 교육 시작으로 난타·요가·수화 등 취미 활동도

려 3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불교 교육과 영어교리 등을 중심으로 통도사 경내에서 교육이 이뤄졌던 초창기와 달리 난타, 요가, 수화, 교리 및 영어 교육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인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영축문화회관에서 법회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포교사 등 전문 강사들이 대거 참여해 강의의 질을 높인 것도 인기 비결이다. 또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1년 365일 언제나 자원봉사를 하자'는 뜻의



통도사 문화재 지킴이단의 밤에 참가한 학생들이 난타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1365 자원봉사통합포털(http://www.1365.go.kr)에도 등록해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자원봉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학생들은 수업 외에도 통도사의 크고 작은 행사 질서 유지, 쓰레기 줍기 등 사중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행단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영축문화회관에서 법회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포교사 등 전문 강사들이 대거 참여해 강의의 질을 높인 것도 인기 비결이다. 또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1년 365일 언제나 자원봉사를 하자'는 뜻의

을 위해 불심양면으로 지킴이단 운영에 애정을 쏟고 있다. 특히, 자모들은 아이들을 기다리는 시간을 수화, 난타 등 수업에 동참함으로써 문화재지킴이단을 단순한 청소년 신행단체가 아닌 가족애를 되살리는 훈훈한 단체로 성장시키고 있다.

한편 통도사 문화재지킴이단에 입회하고자 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은 월 1만원의 회비와 함께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부산과 양산 영축문화회관의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어 부산에 거주하는 학생도 무리없이 참여할 수 있다. (051)382-1775

김나영 객원기자

부산 대불련 모임 새로운 도약 다짐

부산대·동아대 등 7개대 매월 법회 병행 계획

대불련 부산지부(회장 임중윤)가 10월 31일 미타선원에서 부산 불교 대학생들의 모임을 재계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대, 해양대, 동아대, 동부산대, 부경대, 동의대, 동의과학대 등 대불련 부산 지부 7개 대학 학생 4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부경대 교수불자 회장 박영병 교수, 동부산대 권경진 교수도 참가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교수 불자회 회장 박영병 교수는 “과거 대불련의 영향력은 아주 커서 많은 불교 인재를 양성하는 좋은 모임이었는데 10년 전부터 각 대학에 불교 동아리도 사라지고 활동들이 미미해졌다”며 “앞으로 활동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중윤 대불련 부산지부 회장은 “각 지회 별로 학생들이 활동

을 하고 있었는데 다 같이 모임 건 처음”이라며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포교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대불련 부산지부가 다시 모이게 된 계기는 교수 불자회의 4년간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중앙회에서 지원받던 교수 불자회의 지원금들을 각 학교의 학생들에게 보시하고 학생들의 불교 동아리 활동 및 모임을 위해 지원 해왔던 것이다.

대불련 부산지부는 앞으로 매달 마지막 금요일 오후 6시 미타선원에서 법회를 병행하고 불교 공부 및 친목을 다질 예정이다. 또한 방학 중에는 티베트, 라오스, 미얀마 등을 방문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힐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불교인권단체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울산 북대 금선선원서 지방투어 첫 기자회견



불교인권단체 울산 기자회견 장면

불교인권단체 관련 스님들이 금강산 관광재개를 촉구하는 지방투

어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판)는 울산 북대 금선선원 임시법당에서 10월 3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불교평화연대 도성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판 스님, 스리랑카 사다나 스님 등 불교인권 단체 스님들이 참석했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한국불교선조계종 창종1주년 기념법회

사단법인 한국불교선조계종(종정 지선·총무원장 법성)은 10월 31일 대구 총무원 성불사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종정 지선 스님, 명예종정 혜

원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법성 스님은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서 승가 화합하고 단결해야 할 것”이라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순문철 대구지사장

“화랑정신, 청년들에게 귀감 되길”

청도운문사 화랑오계비 이전 제막법회

이전 제막법회

청도 운문사(회주 명성)와 법륜불자교수회(회장 김성규)가 주최한 ‘화랑오계비’ 이전 제막법회가 11월 2일 운문사 대웅전에서 개최됐다.

이날 법회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주지 일진 스님, 운문사승가대학장 흥륜 스님을 비롯해 법륜불자교수회장 김성규 교수, 팔공총림 동화사 사회국장 지원 스님, 육군3사관학교장 금음백 소장, 청도군 이승울 군수, 육군3사관생도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1994년, 당시 운문사 주지였던 명성 스님이 발원하고, 일출 김충현 선생이 쓴 화랑오계비는 청도군의 건립 지원으로 운문사 입구에 세워졌다. 주지 일진 스님(원광화랑연구소장)은 “운문사가 화랑정신 운동의 중심에서 있음을 증명하는 불사”라며 “화랑정신이 청년정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이전 소감을 밝혔다.



청도 운문사는 화랑오계비를 경내로 이전하고 11월 2일 제막법회를 열었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화랑오계비에 새겨진 세속오계는 당시 청년리더였던 화랑들에게 던져진 책 임의식을 의미한다. 화랑오계가 21세기 젊은이들의 정신을 반듯하게 세우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감이 되었으면 한다”며 바람을 전했다.

법륜불자교수회장 김성규 교수는 “불교 전파의 초기에 보면 인도 아쇼카왕이 전국에 석주를 세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항목을 석주에 새겨 놓았다”면서 “신라 화랑오계가 21세기의 청년들에게도 세상사는 바른 진리를 전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육군3사관학교장 금음백 소장은 “과거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신라 화랑들이 평소 생활과 수행의 기본 가르침으로 삼았던 화랑오계는 군인정신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평소 마음과 행동을 밝히는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자리하고 있다”면서 “운문사를 찾는 모든 이에게 원광법사의 크고 바른 가르침을 일깨우고, 화랑오계가 새천년 청년정신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진 제막식에서는 화랑오계비 제막과 21세기의 신화랑 헌화, 화랑오계 제창 등이 이어졌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미타선원 가족 한마당 축제 개최

10월 31일 사부대중 200여명 참여



미타선원 가족 한마당 공연 장면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10월 31일 '제1회 마음편한 우리 곁 미타선원

가족 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는 보름참선 법회팀, 지정법회팀, 어린이 청소년 명상센터팀 등 총 13개의 신행팀이 참가했고 스님들의 특별 무대 및 합창단의 공연도 마련됐다.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여한 한 마음 가족 축제는 8년 간 정기적으로 개최했던 합창단 공연을 발전시켜 미타선원 소속의 각 신행 단체들이 장기지랑 및 공연을 경영방식으로 무대를 꾸몄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타선원 신도들이 스스로 준비

하고 자발적인 무대로 꾸민 자리라 의미를 더했다.

주지 하림 스님은 “미타선원이란 집에 한분 한분이 기둥이 되어 지금 까지 잘 버티고 발전하고 있다”며 “누구 하나의 미타선원이 아니라 모두가 기둥이 되고 가족이 되는 선원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최우수상은 초하루에 법회를 운영하는 ‘초하루 팀’에게 돌아갔다. 부상으로는 ‘주지스님과 함께 하는 가을 여행’ 상품이 주어졌다. 하성미 기자

혜원정사 원허 스님 출판기념 법회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출판 기념법회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의 신간 <세상을 물들이는 멋진 아침> 출판 기념 법회가 11월 3일 국제신문 중앙당에서 개최됐다. <세상을 물들이는 멋진 아침>은 매일 새벽 SNS 소통의 공간 '원허 스님의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밴드를 통해 전해졌던 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

원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하루의 시작을 부처님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발심하게 되었다”며 “이슬이 옷 젖듯이 부처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물들이고 부처님을 닮아가고 세상을 부처님 말씀으로 물들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에는 이해동 시의회 의장, 주석수 구의회 의장 및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하성미 기자

저출산 고령화 사회, 국가경쟁력 위기의 시대에 국가적 인재를 길러내는 영재태교법

어떤 태교법보다 우수한 ‘관음태교’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를 ‘관음태교’로 낳아 기르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 아이를 낳아 기르기가 힘든 한국사회
세계평균출산율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9명(2012년 기준)인 우리나라의 가장 낮은 출산율은 한국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가 힘든 나라임을 말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육아(育兒)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 중 가장 큰 부분이 아이의 교육비입니다. OECD 국가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육비를 가정이 부담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또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현대사회에서 출산이 아이의 밝은 미래와 가족의 행복을 담보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 국가경쟁력 저하되는 사회적·국가적 위기

이 저출산율이 사회적·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저출산은 당연히 고령화 사회를 만들어 생활활동인구를 급격히 감소시

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게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 교수)이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제 아이의 출산문제에 대해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관음태교 - 저출산 사회에서 우수한 양질의 인재를 길러내는 태교법

이런 사회적 국가적 현실 속에서 관음태교는 산모의 행복한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와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며 국가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지금 이 시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태교법입니다. 태아를 출산할 때 예비 부모가 가장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점이 사교육비입니다. 그러나 관음태교는 지혜 총명한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부모가 부담해야 할 사교육비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관음태교는 자칫 발생 우려가 큰 비정형성선

총명하고 심성이 바른 영재를 길러내는 전인적 태교법

태교(胎敎)는 출산 후의 평생교육보다 더 중요합니다.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부모와 선연(善緣)의 태아를 점지 받고 또 태아의 업장을 소멸시켜서 심성이 바르고 지혜 총명한 아이를 낳게 합니다. 또 태어난 후에도 관세음보살님 영불을 계속함



▲ 관음태교로 출생한 아이를 소개하는 자재현관 스님

으로써 영유아교육 과정에서도 아이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보호 속에 자랄 수 있습니다. 관음태교는 아이의 밝은 미래와 가족의 행복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태교법입니다.

관음태교의 방법

첫째, 관세음보살님께 3배하고, 귀의·참회 하면서 주스·생년·이름을 고합니다. 둘째, <관세음보살보문품>을 1독하고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를 5, 15, 32회 독송합니다.

관음태교를 하면서 가장 주의할 점은 살생, 도둑질, 거짓말, 사음, 음주(술 외에도 담배·마약 등)를 하지 말라는 재가불자의 5계(戒)를 반드시 지키고, 10선(善)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전에 임신 계획을 잘 세워서 낙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낙태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고 낙태아와 원결(冤結)을 맺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연분만을 하고 모유를 먹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도 영불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불자라면 모두 관음태교로 아이를 낳아야

불자 여러분! 관음태교는 훌륭한 심성을 가진 총명 유능한 국가적 인재를 길러내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불교 고유의 영불태교 법입니다.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아이의 행복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관세음보살님께서 부촉하신 관음태교로 소중한 내 아이를 낳아 기르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안내

- 현지사 대전본원 정기법회(253회)
- 11월 16일 (일), 오전 9시 30분

법회를 찢어주는 세계 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교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춘천본사 033)243-1787, 1795
대전본원 042)052-505325



관음태교 체험사례 발표